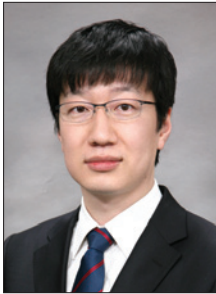


이달의 이슈 102

가계 전방위적으로 소비 줄여



김 천 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ck1009@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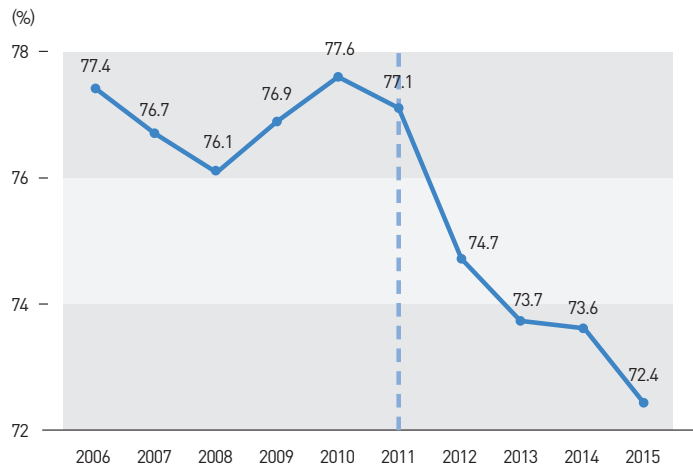
최근 수년간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급감하는 모습이다. 2006~2011년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77%대 전후를 유지했으나 2012년 이후부터 평균소비성향이 급감하였다. 2015년 평균소비성향은 72.4%로 2006년 전국 1인 이상 가구 가계동향조사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3년부터 자료가 제공되는 전국 2인 가구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평균소비성향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1990년부터 자료가 제공되는 도시 2인 가구 이상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평균소비성향은 외환위기 이래 최저 수준이다. 이처럼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다는 것은 가계가 돈이 생겨도 소비를 늘리기보다 저축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가 돈을 안 쓰고 저축을 늘리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일자리가 불안하고, 평균수명은 점차 늘어나며, 은퇴 이후 노후생활을 위한 돈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현재 소비를 줄이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행동일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가계가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데만 집중한다면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과정
- 최근 연구: 평균소비성향 변동의 기여요인 분해와 시사점, 월별 소비변동과 시사점, 맞벌이 가구 현황과 소비특성,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가계의 소비 감소는 경제 충수요를 줄어들게 하고, 이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켜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즉, 개인의 합리적 행동이 오히려 국민소득을 감소시켜 개인을 가난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을 낳는다.



주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통계자료는 2006년부터 제공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1〉 평균소비성향 추이

그렇다면 가계는 여러 소비 항목 중 어떤 품목의 소비를 줄이고 있을까. 평균소비성향이 급감하기 이전인 2011년과 가장 최근 시점인 2015년을 비교하여 평균소비성향 변동요인별 기여도^①를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전체 평균소비성향이 2011년 77.1%에서 2015년 72.4%로 4.7%p 하락했을 때 식사비의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2011년 9.5%에서 2015년 9.3%로 하락했다면 식사비는 전체 평균소비성향 하락분인 4.7%p 중에서 0.2%p 하락으로 설명된다.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 항목은 12개 대분류와 97개 중분류, 393개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석에서는 중분류 기준을 사용하였다.

① 구체적으로 2015년 가처분소득 대비 j 상품의 소비지출과 2011년 가처분소득 대비 j 상품의 소비지출 차이를 구하여 품목별로 전체 평균소비성향 증감에 대한 기여분을 산출하였다.

$$\text{평균소비성향 변동요인별 기여도}_j = \frac{\text{품목별 소비지출}_{j,2015}}{\text{가처분소득}_{2015}} - \frac{\text{품목별 소비지출}_{j,2011}}{\text{가처분소득}_{2011}}$$

평균소비성향의 하락 현상은 광범위한 품목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2011~2015년 평균소비성향 하락에 기여한 품목 수는 97개 품목(중분류 기준) 중 63개 품목인 반면, 평균소비성향 상승에 기여한 품목 수는 34개 품목이었다. 평균소비성향 하락에 기여한 품목 수가 평균소비성향 상승에 기여한 품목 수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는 것은 특정 품목에서 평균소비성향 하락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계가 전반위적으로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평균소비성향 상승, 하락에 기여한 품목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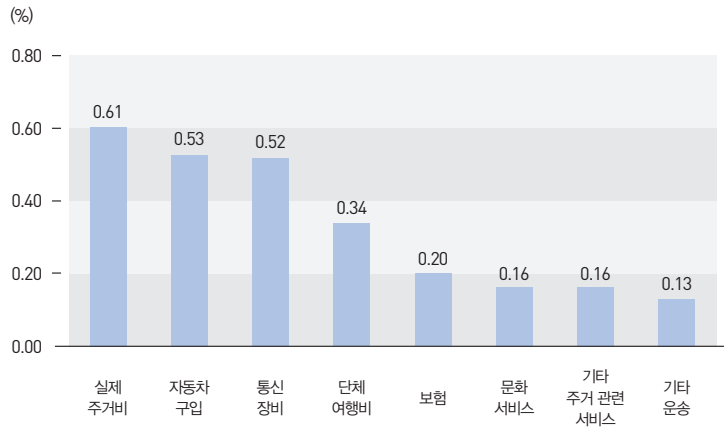
| | 평균소비성향 상승에 기여한 품목 수 | 평균소비성향 하락에 기여한 품목 수 |
|------------|------------------------|------------------------|
| 전체 | 34개 | 63개 |
| 식료품·비주류음료 | 3개 | 15개 |
| 주류·담배 | 1개 | 1개 |
| 의류신발 | 0개 | 6개 |
| 주거·수도·광열 | 2개 | 3개 |
| 가정용품·가사서비스 | 6개 | 4개 |
| 보건 | 4개 | 3개 |
| 교통 | 3개 | 6개 |
| 통신 | 2개 | 1개 |
| 오락·문화 | 9개 | 11개 |
| 교육 | 0개 | 6개 |
| 음식·숙박 | 1개 | 1개 |
| 기타상품서비스 | 3개 | 6개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물론 2011~2015년 사이에 평균소비성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품목도 있었다. 대표적인 상승 품목은 실제주거비 등 대부분의 서울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주거 관련 소비였다.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과 대조적으로 공급이 줄어 같은 기간에 전세 가격이 폭등하였다. 전세 가격은 2012년에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상승하였으며 이후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올랐다.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현상도 실제주거비가 평균소비성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자동차, 통신장비 등 일부 내구재 소비 역시 평균소비성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정부가 2015년 8월 27일부터 2015년 말까지 시행했던 자동

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로 자동차 구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입자동차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비교적 고가품인 스마트폰이 필수화되면서 가계의 통신장비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단체 여행비, 문화서비스와 같은 여가와 관련된 소비 지출과 보험 등도 가계가 소비를 꾸준히 늘리고 있는 품목이다. 문화서비스의 수요가 꾸준히 늘었고, 보험료는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와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상품 출시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평균소비성향 상승에 기여하였다.



주 평균소비성향을 0.1%p 이상 높이는 데 기여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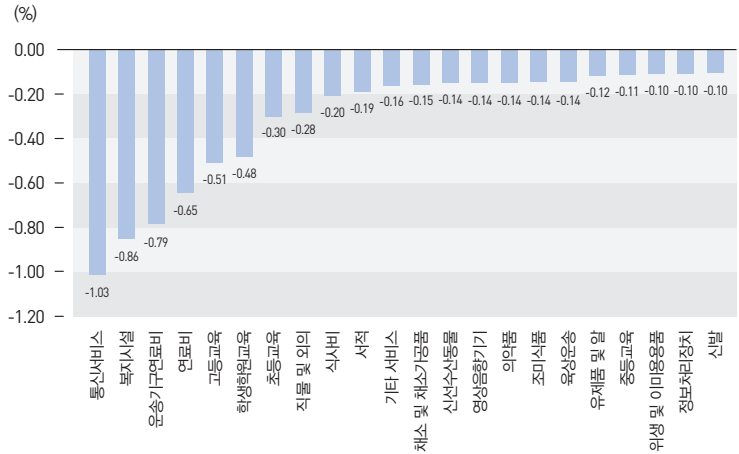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그림 2〉 평균소비성향 상승 기여도 품목

그렇다면 분석기간 동안 평균소비성향 하락에 크게 기여한 품목은 어떤 것일까. 분석결과 평균소비성향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한 품목은 운송기 구연료비, 연료비 등 석유류 관련 품목이었다. 몇 년 전까지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휘발유 1리터에 2,000원 전후의 비용이 들었지만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1,000원대 중반의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주유할 수 있다. 교육 관련 품목도 평균소비성향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90년까지만 해도 서울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은 50명을 훌쩍 넘었다. 하지만 현재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한 반에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은 20명 초반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즉,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가 교육 서비스의 수요 저하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계의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외에도 정부의 통신료 인하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통신비에 대한 가계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줄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가계가 어린이집에 지출하는 비용이 감소하였다. 식사비, 채소 및 채소가공품,

신선·수산·동물 등 식료품 관련 지출의 가계소득 대비 지출 비중도 감소하였다. 식료품은 가계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대표적인 품목이며 엔겔계수²가 이를 나타낸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높은 상승폭을 보이던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2013년 이후부터 안정화되면서 가계의 식료품 지출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 평균소비성향을 0.1%p 이상 낮추는 데 기여한 품목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그림 3〉 평균소비성향 하락에 기여한 품목

분석을 종합하면 주거비 급등,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가계의 수요 변화 등이 평균소비성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석유류, 통신비 등 필수재의 가격 안정과 소득 향상에 따른 식료품 소비 비중 감소 등은 평균소비성향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다. 평균소비성향 하락 요인 중 석유류, 통신비 등은 가격이 안정되어 가계의 다른 품목에 대한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필수재의 가격 안정으로 늘어난 가계의 소비여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중 일부 내구재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가계의 소비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오히려 광범위한 품목에서 평균소비성향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가계가 앞으로도 계속 소비를 줄여 나간다면 경제 충수요가 줄어들어 우리나라가 처한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더욱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성향 하락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² 소득이 높아도 식비는 다른 지출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식료품지출/소득 또는 식료품지출/총소비 등으로 측정

먼저 정책 당국은 현재 내구재 중심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비내구재, 서비스 등 다양한 부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나 대용량 가전제품 등 내구성 소비재는 비교적 사용기간이 길어서 소비 진작의 효과가 일회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내용기간이 비교적 짧은 비내구재 서비스 등의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가계의 소비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게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문화서비스와 관광 분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여행객들의 수요에 맞는 국내의 관광 기반을 갖추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여가 관련 소비가 국내에서 더욱 확대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양한 요구에 걸맞은 국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급 리조트와 골프장 등 가계의 수요에 맞는 관광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해외의 관광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려는 노력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낙후된 국내 관광 시설을 개선하고, 관광 명소와 맛집, 전통 유적 등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여 국내 여행의 편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특히 가계가 소비를 늘리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인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 주택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에게는 임차인 보조금 확대, 저리 용자 자금 확대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미래 불확실성으로 냉각된 소비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 추진 의지는 각 경제 주체의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을 고조시킴으로써 가계들의 불안한 미래심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해서 최근 억눌려 있는 소비심리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현대경제연구원, 2013, “평균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과 시사점”
2. 현대경제연구원, 2014, “2020년 인구 효과에 따른 소비구조 전망”
3. 현대경제연구원, 2014, “소비 부진의 요인별 분석과 경제적 파급영향”
4. 한국개발연구원, 2014,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5. 한국은행, 2015, “소비자물가 중 가격하락 품목 수 증가의 원인 및 평가”